 <b>보 도 자 료</b> 2013.4.17.(수)	행사문의	양 애 경 (02-3156-7152)
	언론담당	황 애 리 (02-3156-7296)
	보도일자	2013.4.17.(수) 부터
	※ 총 5쪽 (붙임 포함) <a href="http://www.kwdi.re.kr">www.kwdi.re.kr</a>	

## 여성 대통령 시대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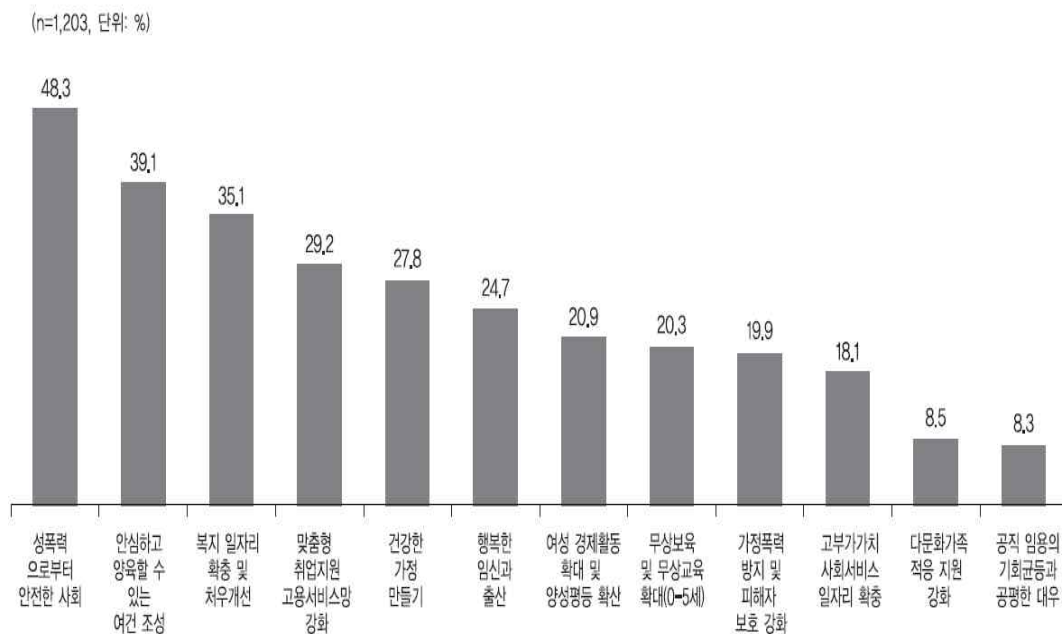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맞아  
새 정부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 여성 대통령 시대,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은 무엇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한 국민 인지도,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 이번 조사는 2013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에 걸쳐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지역 제외)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1,000명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에서 운영 중인 생활체감정책단 203명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정도 및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이다. 자료에 나타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국정과제는 성폭력/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 남녀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분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국정과제

-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에 분야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과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97.9%),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97%),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95.2%) 순이었음.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48.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9.1%), ’복지와 일자리 확충 및 개선’(35.1%)순으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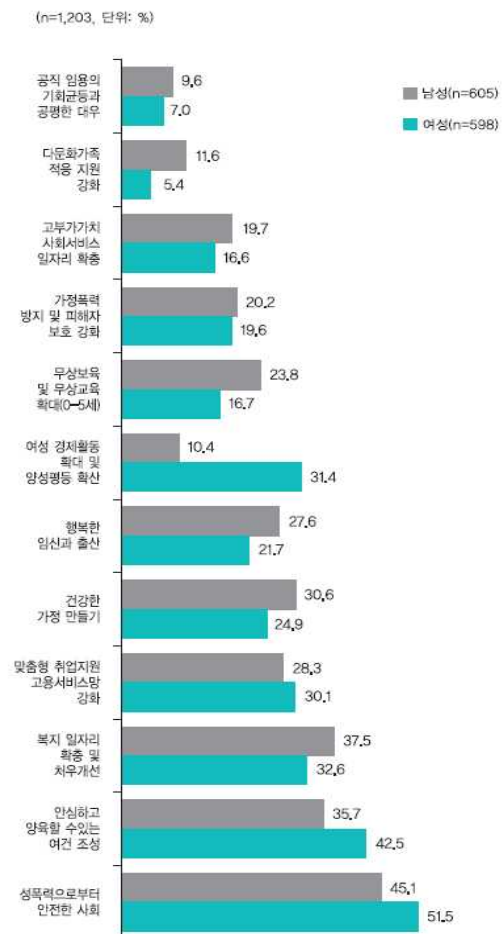
<그림 1>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과제(복수응답)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남녀간 인식 차이 가장 커

□ 우선 추진해야할 국정과제에 대해서 남녀간 인식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는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여성 31.4% > 남성 10.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여성 16.7% < 남성 23.8%),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여성 42.5% > 남성 3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의 경우는 우선 추진 과제로 인식하는 정도의 남녀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응답자 비율보다 21%p 가량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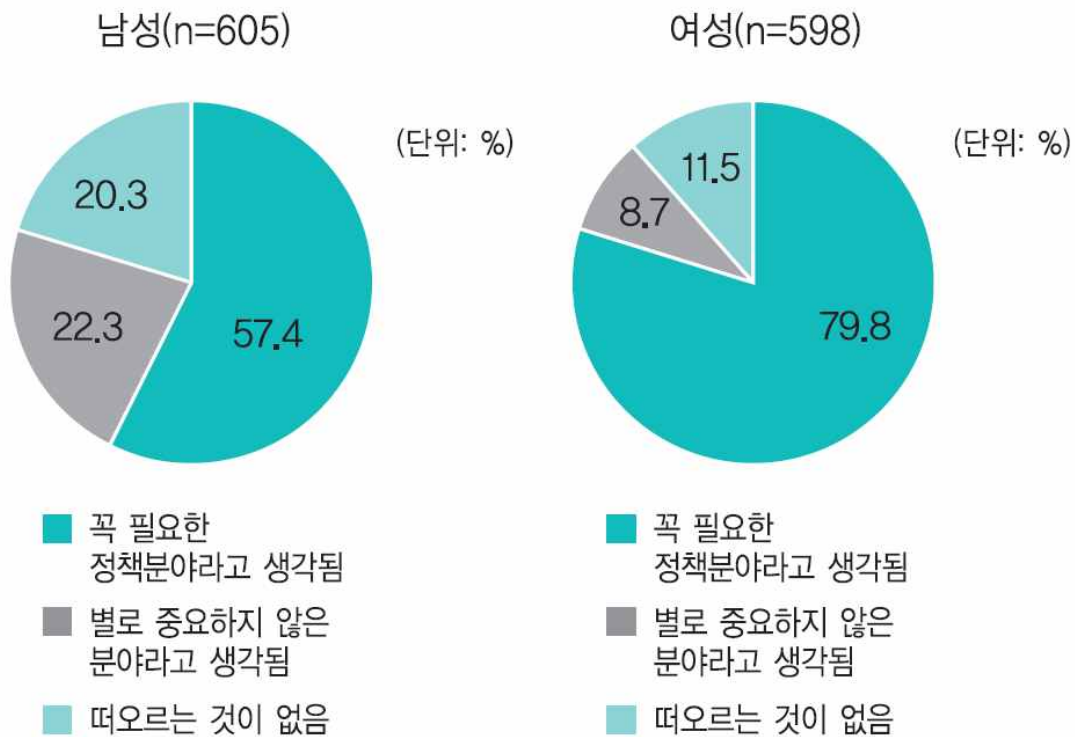
○ 여성이 남성보다 우선 추진 과제로 보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순이었음. 남성의 경우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순이었음.



<그림 2>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응답(성별)

## 여성 79.8%, 남성 57.4%, 여성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

-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 분야’라는 응답이 68.5%로 나타남. ‘꼭 필요한 정책분야’라는 응답(여성 79.8% > 남성 57.4%)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야’(여성 8.7% < 남성 22.3%)라는 응답의 경우 모두 남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여성정책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

### 붙임 1. 조사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